

들어가는 글 II

글 · 서상현 shseol@hanmail.net

21세기 들어 아프리카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다른 대륙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며 가난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내전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치적 안정을 되찾고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발전에 힘쓰고 있다. 서부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중동부아프리카의 르완다, 부룬디 등은 오랜 정치적 분규가 해결되고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그중 라이베리아는 아프리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였고 르완다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 중 53%의 자리를 여성 의원이 차지하였다. 따라서 국회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 의원의 영향력이 56%에 이르며, 대법원 등 사법부 인원도 여성이 40%를 웃돌고 있다. 이 밖에 행정부에도 장·차관 등 고위직에 여성 비율이 36%를 차지하고 있는 등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이 스웨덴 등을 제치고 세계 최고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의 선진 국가라 불리던 케냐와 짐바브웨 등에서는 잇달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 지난 2007년 말 케냐에서의 대통령선거 부정 의혹은 결국 종족간의 갈등을 가져와 1천명 이상이 정치적 갈등, 폭동으로 사망하였고 수십만 명이 정든 고향을 버리고 피난을 가는 상황이 되었다.

케냐의 경우 2002년 28년 동안 독재정권을 전형한 다니엘 아랍 모이(Moi) 정권에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화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평가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과거로의 회귀를 선택함에 따라 그 충격이 더 깊어지고 있다.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케냐의 현 대통령인 음와이 키바키(Mwai Kibaki)가 로버트 무가베(Robert Mugabe) 클럽에 합류한 것 아니냐 하는 견해를 내 놓기도 하였다. ‘무가베 클럽’이란 약간 자조적인 평가로



아프리카 최초의 여성대통령 라이베리아 존슨 설리프

이는 짐바브웨 대통령 무가베가 100살까지 대통령을 할 것이라는 독재권력 야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프리카에서는 무가베를 비롯하여, 우간다의 무세베니대통령, 가봉의 봉고대통령 그리고 최근 내전상태에 있는 차드의 이드리스 데비(Deby) 등 일부 지도자들이 현재 20년 가까운 장기집권을 구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케냐에서는 정치적 분규가 발생하지 3개월 만 만에 야당과의 권력공유를 통한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었다. 야당 당수가 수상으로 임명되었고 40명에 달하는 내각도 균등하게 배분하여 정치적 갈등에 대한 봉합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방편일 뿐 언제 다시 연정

이 붕괴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짐바브웨는 케냐 보다 훨씬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을 보였다. 2000년 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에서 정치·경제적으로 모범적인 국가였던 짐바브웨는 2002년 무가베의 정치적 야욕으로 정치·경제적 붕괴를 가져왔고 지난해에는 무려 1억%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 1천억 달러 화폐까지 등장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가베는 자신의 생일에 수억 원을 들여 값비싼 캐비어나 와인 등을 구입하여 호화 잔치를 펼쳐 전 세계의 빈축을 사기도 하였다. 그는 독재자로 국민의 고통보다는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지도자로 비쳐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무가베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가베는 자신의 권력연장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부정선거로 대통령직을 연장하고 있지만 그는 분명 백인들에 대항하여 짐바브웨를 온전히 백인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 자국 내 백인들, 그리고 국제 다국적 회사들과 전쟁을 벌였다. 즉 무가베가 자국 내 가장 비옥한 토지 대부분을 백인들이 점유하고 있고 흑인들은 단지 단순 노동력 제공 역할을 할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백인 토지 몰수 정책을 펼쳤으나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국가와 미국은 이를 단순히 무가베의 독재정치에만 초점을 맞춰 그와 짐바브웨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했다.

결과적으로 영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는 짐바브웨 국민 90% 이상을 실업자로 양성하였고 수많은 짐바브웨 국민들이 아사에 직면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3월 실시



▲ 짐바브웨 화폐단위
◀ 식사 한 끼의 화폐

된 대선 결과를 둘러싸고 짐바브웨 여당과 야당이 올 초까지 장기간 대치해 왔다. 최근 지난 2월 짐바브웨의 여·야당은 무가베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는 대신 제 1야당인 민주변화동맹(MDC)의 모간 창기라이 총재가 총리를 맡기로 하고 여·야 거국내각을 출범시켰지만 양당의 의견 충돌이 지속돼 지금까지 이렇다 할 정치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정치적 불안이 언제 종식될지도 의문이다.

올해 아프리카 내 13개국에서 대선

이처럼 일부 국가에서는 권력연장의 야욕으로 민주화 달성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올해는 아프리카 민주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총 13개국에서 국가의 지도자를 결정하는 선거가 치러짐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화 욕구가 달성될 것인가가 가름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북아프리카의 알제리가 지난 4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선거 결과 현 대통령 압델 아지즈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가 당선 되었다. 부테플리카는 5명의 후보자들(민족주의자 2명, 근대이슬람주의자 2명, 좌파 여성 1명)을 큰 표 차로 제치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부테플리카도 연임제한 규정 철폐를 위해 지난해 11월 알제리 의회에서 헌법 개정을 시도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이로써 부테플리카는 평생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갖추었고 이를 반대하는 주요 야당은 이러한 개헌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지만 부테플리카의 경제운용 성공으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밖에 모리타니, 수단, 튀니지, 동아프리카의 말라위, 모잠비크, 서아프리카의 적도기

니, 니제르, 콩고공화국, 남아프리카의 나미비아, 남아공, 앙골라, 보츠와나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이들 대선 중 단연 관심이 집중되는 선거는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대국이자 지난 한 해 대통령의 조기퇴진 등 정치적 혼란이 극심했던 남아공의 대선이다. 이밖에 안정적 국정 운영 속에 본격적인 경제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앙골라와 모잠비크의 대선 또한 주요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남아공 총선, ANC의 정치 시험대

지난해 9월, 남아공 대통령 타보 음베키(Thabo Mbeki)의 조기 퇴진 이후 남아공 의회는 아프리카민족회의의 부의장 갈레마 모틀란테(Kgalema Motlanthe)를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남아공 대통령은 의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남아공의 정치 구조상 넬슨 만델라 집권 이후 15년 동안 절대 다수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ANC(아프리카 민족회의)에서 대통령을 배출하였다. 따라서 현 ANC 의장인 제이콥 주마(Jacob Zuma)가 차기남아공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7년 12월 치러진 ANC 의장선거에서 최대 정적인 타보 음베키 대통령을 물리치고 주마가 당선된 배경에는 ANC 내 주요 정치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좌파 성향의 남아공노동조합(COSATU)과 남아공 공산당(SACP)의 전폭적인 지지가 큰 역할을 하였다. COSATU와 SACP는 그간 음베키 전대통령이 성장 위주의 정책만을 고집하여 부의 재분배를 통한 흑인 계층 복지 향상과 토지개혁 등에 미진했다고 비판해 왔다.

이밖에 이번 남아공 선거는 인종, 종족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음베키 전대통령을 지지하는 종족은 남아공 두 번째 큰 종족인 코사족 출신들이며, 반면 주마 측 지지자들은 주로 남아공 제 1의 종족인 줄루족 중심이라는 점이다. 이는 1994년 이후 ANC 내부에서 종족간의 갈등이 백인정권을 몰아내는 구체적인 목표로 단결이 되었지만 1994년 이후 남아공의 주요 정치세력이 코사족 위주로 형성되자 ANC 내 정치세력의 줄루족 출신이 이번 선거를 반격의 기회를 삼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음베키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주마 ANC의장

ANC 정치세력들이 ANC에서 탈퇴하여 인민회의(Congress of the People: COPE)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이번 선거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인민회의나 전통적인 야당의 선두인 민주동맹(DA)이 ANC를 밀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정치 분석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앙골라 대선 - 경제 활황이 민주화로 이어지나

남부아프리카의 신흥 경제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앙골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내전을 겪은 국가이다. 앙골라는 1975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이후 2002년까지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교전으로 황폐화 되었다. 또한 앙골라의 사회주의 노선은 남아공과의 대립으로 두 국가는 수십 년 동안 전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앙골라의 이와 같은 국가 현황으로 인해 정치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장기독재의 길을 걸어왔다. 특히 2002년 내전종식 후 야당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선거가 실시되었지만 앙골라는 독립 이후 여전히 앙골라 인민해방운동(MPLA)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1979년 이후 산토스(Jose Eduardo dos Santos)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해 9월에 치러진 총선에서도 MPLA가 압도적 승리를 하였고 올해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서도 산토스의 재집권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산토스 대통령은 절대 다수를 차지한 여당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고 대통령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을 통해 아프리카의 또 다른 독재자와 마찬가지로 장기집권을 할 태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토스의 개헌과 관련하여 야당을 비롯한 지식

인들은 시위 등을 통해 항의를 표시하였고 이로 인해 대통령 선거도 계속 지연되었다. 물론 산토스 정부의 앙골라가 현재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룸으로써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앙골라 국민들은 점차 산토스의 장기독재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정치적 변화를 통해 민주화를 염원하고 있다.

이처럼 올해 아프리카에서는 관심 있는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도 알제리나 앙골라처럼 대통령 연임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집권하려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으며 또한 케냐나 짐바브웨처럼 부정선거의 의혹으로 인해 정치가 불안정한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장이 높은 앙골라 경제건설현장



동아프리카의 관문 케냐 나이로비 시내 전경

국가들도 있다. 이는 아프리카에서의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나의 정치혁명과 아프리카 민주주의의 미래

위에서 언급한 아프리카의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는 반대로 가나에서는 순조로운 민주화이행이 진행되었다. 지난 1월에 실시된 가나의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 아프리카는 물론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보기 드문 평화적 정권교체의 모범을 보여줬다. 가나는 2000년 대선에서도 당시 야당 후보였던 존 쿠푸오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가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2일 실시된 결선투표 최종개표 결과 제 1야당인 국민민주회의(NDC)의 존 아타 밀스 후보가 50.23%의 지지를 얻어 여당인 신애국당(NPP)의 나나 아쿠포 아도 후보를 0.46% 포인트 차로 앞서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아쿠포 아도 후보는 개표 결과가 나오자 즉시 패배를 인정하고 아타 밀스의 당선을 축하했다. 이처럼 가나의 경우 흑아프리카 최초의 독립국으로, 평화적인 선거와 정권교체 등으로 아프리카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이고 있어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